

노지문화 보존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지문화 생태예술가

유 용 예

유용예

가파도 지역 주민으로서, 해녀로서 그리고 사진가로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 해녀 생활 문화사를 중심으로 지역 공감대 형성과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작의 기점으로 기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활 동 명 : 제주 로컬리티 프로젝트 해녀바당 ‘기억의 구성’

대 상 : 가파도/마라도 - 본 섬 (상/하모리 지역)

결 과 물 : 사진 및 영상기록(지역자원문화 생태지도 및 아카이빙)

기 록 : <https://youtu.be/LRnw7ZVUIaM>

1.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가 유용예라고 합니다. 제주 남쪽에 위치한 아주 낮고 작은 섬 가파도에서 몇 안 되는 섬 주민의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좌표에 표기된 제주 남쪽 섬으로 삶을 옮겨 오면서 몸과 삶으로 언어와 문화를 인지하고 체화시키며 사진가에서 그리고 해녀로서... 섬의 자연 생태 그리고 사람들, 해녀, 바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제 경험과 삶으로 체화되고 인지되어 가는 해녀 공동체의 고유성과 현재성을 사진과 영상, 설치, 유무형의 기록적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 진행 중이며 이를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할망바다’, ‘섬섬’, ‘물벗’ 사진 전시 외에 가파도 해녀 문화의 기록 보전 전승 - 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가파도 해녀 프로젝트 ‘홈 커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 이 섬에 정착할 때만 해도 저는 사진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가파도 해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 속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해녀이지만 여전히 사진가이기에 그들이 바닷에 드는 모습을 하나하나 가만히 제일 오래 지켜봅니다. 사진가이기도 하지만 가파도 해녀 커뮤니티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가파도 섬 고유의 유·무형 해녀 문화를 섬의 생활사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기록을 위해,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현재성까지 사라져가고 있는 가파도 해녀 문화의 전승·보존 문화예술로의 재창조를 위해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작업해 온 다년간의 기록을 엮어 가파도 ‘홈커밍’ 해녀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파도 작업실을 기점으로 제주 본섬을 오가며 사진 작업의 기록 형태와 구성을 넓혀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3.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의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가파도 섬입니다. 바다에 가지 않을 때는 본 섬으로 사진 작업을 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 이 섬에 정착할 때만 해도 저는 사진가였습니다. 가파도 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상징적으로 형상화된 제주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과거 제주 섬의 시간이 그러하듯이 시대와 역사 속 해녀 공동체가 질서와 배려로 이어온 ‘공존의 바다’를 통한 연대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역사와 문화는 섬세하고 뚜렷하고 또한 아름답고 강렬했습니다. 일상의 섬 생활사를 통한 정말 많은 생태 문화로부터 기록문화 가치와 사실적 영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환경 변화 속도는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거나 혹은 무더진 일상 속에서 변이되고 사라져갔습니다. 그 과정 중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지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많은 유·무형의 일상 문화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문화를 보며 손 쓸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과 함께 지키고 기록하려는 노지 문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지역 예술가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4. 작가님이 바라는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노지 문화라 하여 함께 찾고 주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면, 모두의 시간을 통해 지켜 온 문화의 가치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보존해야 할 문화로서 인지도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현장

기록 (사진 출처: 작가 제공)

가파도 현장 답사, 취재 및 기록







